

“진정한 환경기술인의 길”



김수형 | 대전충남환경기술인협회회장

안녕하십니까? 전국에 최일선에서 환경업무에 최선을 다하시는 한국환경기술인연합회 회원 여러분!

대전충남환경기술인협회회장 김수형입니다. 전국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환경기술인은 어느 누구보다 더 환경을 사랑하고 아끼고 지켜나가는 국가의 청병들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세기 인류는 산업문명의 발달에 힘입어 경이로운 경제 성장과 물질적 풍요를 누리게 되었으나 자연 자원이 무한한 듯 마구 써버렸고 자연의 정화능력을 초과하는 환경오염을 야기 시켰습니다. 그 결과 많은 동식물이 사라져 생태계가 훼손되고 자연계에 버려진 오염물질은 우리의 삶 자체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환경보전 없이는 성장 자체가 무의미해져 버린 '환경의 세기'가 도래하였고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공존할 수 있는 발전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지 못한다면 삶의 길은 물론 인류생존 자체가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환경과 경제는 상충적 관계라는 관념에서 벗어나 상생의 관계로 정립되어야 합니다. 경제발전과 환경보전을 함께 이루기 위해서는 환경기술인의 기술개

발이 무엇보다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며 현장의 환경파수꾼으로서 진정한 환경기술인의 길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준경하는 회원 여러분! 지금 사회는 우리 환경 기술인들에게 일반적인 기초상식이나 단순한 관리의 범주를 넘어 효율적이고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흐름에 도태되지 않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동안 많은 회원들은 자의든 타의든 이러한 흐름을 적응하여 왔으며, 그러한 추세가 계속되어 진다는 것을 자명한 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적응이 그러한 노력들이 모여서 회원 개개인과 우리 환경기술인의 위상 변화는 물론이고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환경기술인 여러분 끊임없는 자기계발과 뼈를 깎는 정신력만이 진정한 환경기술인의 길을 걸어가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전국에 계시는 회원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행복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